

# 생태자원 2개소,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 전북도, 국가지정 산림문화자산 18개로 늘어 전국 최다 보유... 임실 '장제무림' · 군산 '장자 할매바위' 신규 추가

도내 생태자원 2개소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국가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자체가 됐다.

전북도는 산림청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심의회를 통해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일원 '장제무림'과 정읍국유림관리소 관할 군산 '장자 할매바위' 2개소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임실 방수리 '장제무림'은 마을

및 농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조성된 방수림이며, 길이 1,000m, 폭 30~60m로 하천을 따라 느티나무, 팽나무, 서나무, 왕버들 등 다양한 식생이 2.5ha 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다.

300년 전 이곳에 살던 황씨 부부가 홍수를 막고 농사를 위한 수리 시설용으로 제방을 쌓고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생명의 숲 국민운동에서 아름다운 마을 숲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소관인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리에 위치한 '군산 장자 할매바위'도 이번 심사에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승인됐다.

이에 도내 국가산림문화자산은 남원시 5개소, 진안군 4개소, 장수군 3개소,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에서 각 1개소씩 총 18개소로 늘어, 전국 82개소 중 22%를 차지하게 됐다.

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으로, 시설물 보수, 수목식재, 안내판 정비 등 산림문화자산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과 관련된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삶의 일부로서,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 관리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농산물 도매시장 방역 '총력'

### 도내 공영 도매시장 방역수칙 운용 점검을 매일 · 상시로 전환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전주 농산물도매시장 현장 방문 · 점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에, 전북도가 도내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재차 강화했다.

도는 14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 코로나19로부터 도매시장 종사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빈틈없는 방역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도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의 방역 매뉴얼을 운용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써왔다.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는 도매시장 종사자의 백신접종 독려,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홍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전주 농산물도매시장 현장 방문 · 점검

및 점검을 강화해왔고, 매주 진행했던 도매시장 점검을 12월부터 매일 상시 점검으로 전환했다.

또한, 도매시장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시에도, 농산물 유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유매장 확보, 타 시장 분산 등의 매뉴얼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

# 미국 뉴욕에 전북 음식공예 홍보관 조성



### '비빔밥과 방짜유기 · 전통주와 도자기 · 발효와 옹기' 테마 전시 뉴욕의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내 영구조성 · 전북홍보 추진

전주비빔밥과 방짜유기, '전북 전통주(이강주, 죽령고, 송화백일주)와 분청사기', '발효식품(순창고추장 등)과 옹기'를 테마로 하며, 전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음식의 기원과 역사, 장인들의 조리법을 소개함과 동시에 음식의 맛과 멋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공예품도 함께 전시했다.

또한, 각각의 전시대 위에는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 홍보 동영상 및 요리 영상을 상시 상영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그레이스 맥, 캐롤린 마로니 미국 뉴욕 연방 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 현지 주요 인사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민선 미주한인 이민사박물관장이 참석했으며, 전북도에서는 미국 워싱턴주에 파견된 최정일 과장과 주뉴욕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조성연 영사

가 대리 참석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 내에서 김치와 한국 전통 장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북도는 이번 뉴욕 홍보관 조성을 계기로 한식의 본고장으로서의 해외 홍보와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민회 도 해외협력국장은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로 집에서 요리하는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고추장, 된장 등 이색적인 한국 전통 장류가 인기를 얻고, 김치 등 한국 전통 음식의 면역력 강화 기능 보도도 한국 음식은 건강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다"며 "이번에 조성된 홍보관을 마중물 삼아 전북도가 지닌 한식문화와 공예품 자원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한국 음식 대표 지역으로서의 전북의 해외 홍보와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 현지시간 기준 13일 맨하탄에 위치한 미주한인 이민사 박물관 내 '전북도 음식공예 홍보관' 조성 완료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홍보관은 미국에서 처음

선 보이는 전북도 음식공예 홍보관 조성사업으로 '전북을 담다'라는 주제로 전북을 대표하는 전통음식과 그 음식을 기품 있게 담아낸 공예품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 '2021년 창업기술혁신대전' 성료

### 엔알비 등 20개 우수 창업기업 · BI 관계자 표창 수여

'2021년 창업기술 혁신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0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전북지역창업보육협회,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한국창업보육협회회장이 창업 기술 혁신으로 우수 성과를 거둔 창업기업 대표, 창업보육센터 관계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내 최초로 이동형 모듈러학교 브릿지 스쿨(Bridge School)을 개발한 (주)엔알비 강건우 대표, 농기구 보관이 편리한 홈가드닝 키트를 개발한 청년창업자인 한국바이오차 최한국 대표가

전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그 외 18명의 입주기업 대표는 전북중기청장을 비롯한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도내 창업보육 발전에 기여한 전북과대학교교BI 김현수 센터장과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김성중 본부장이 전북도지사상, 익산BI 이효신 센터장이 전북중기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2021년 창업보육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한국창업보육협회 박동학 국장이 발표하고, 참가자들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번 '창업기술혁신대전'은 기존의 제품전시 중심의 틀을 탈피하고, BI 전담인력과 입주기업에게 전북 지역 특화기술테마를 중심으로 최신 트렌드와 기술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술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 전북도,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정기회의 개최

### 저출산 극복 위해 지역사회 머리 맞대... 다양한 홍보 · 교육 전개

전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가 14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다.

도내 종교·경제 · 교육 · 언론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저출산 극복 사회

연대회의는 저출산 극복 문제를 범도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사업 규모가 일부 축소됐으나, 보건복지부 함께

육아 슬로건을 활용한 '저출생 대응 공동 캠페인', 아빠육아 참여를 위한 '전북 100인의 아빠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년 공간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년에도 각계 분야에서 일 ·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결혼 · 출산 등 가

족친화 교육 활성화, 행복한 결혼? 임신 · 출산에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 전개하기로 했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출산 및 육아는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어느 한 분야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 사회 각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전북도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전북, 해 · 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호평'

도가 '해 · 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체육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의 '해 · 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사업' 평가에서 전북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체육공원과 야수터 ·

아파트 단지 등 야외 광장(장소)에서 전문지도자들이 체조와 에어로빅, 국악기공 라인댄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고창군체육회가 모양장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또한 부안군체육회에 자연마당에서 추진한 생활체육교실은 우수상을 차지했다.

부안군 공고 제2021-1823호

## 부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부안군 부안읍 선유리 3-6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결정(변경) 위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리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안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사항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면적	종류	위치	면적(㎡)	최소	비고
	면적	국인 체육센터	체육시설	부안군 부안읍 선유리 3-6번지 일원	8,019	1,059	9,078	부안군 2기 2020.10.8 (2020.11.25)
- 부안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사실상	변경내용	변경사유
국인 체육센터 (체육시설)	체육시설 변경	면적 8,019㎡ → 9,078㎡(증 1,059㎡)	민간유용 인구조차 관련 산정의 높은 산정비율에 따라야 하는 체육시설의 면적을 증대하여 공공성을 증진한 것임을 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소극장과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부안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관련서류 : 실용생략(공관참조 비치)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12. 15. ~ 12. 29.(14일 이상)

5. 의견제출 방법 : 부안군청 도시공민과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서면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안군 도시공민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5일 부안 군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